광주송정역 인근·구시청사거리 '성범죄 위험지역'

'생활안전지도' 분석해 보니

무단횡단 사고 빈번-남광주역·건강관리협회 사거리

3년간 화재 발생 최다지역-쌍촌동·치평동·용봉동 순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부근과 우산동 무역회관 주변 유흥가, 동구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 등은 최근 몇 년간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일명 '레드존'으로 나타났다.

또 동구 남광주역 사거리, 서구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는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남구 백운고가 주변과 동구 계림동 산장입구 사거리 주변에서는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서구 쌍촌동은 최근 3년간 광주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서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치안, 교통, 재난, 사고 등 안전분야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지도에 진한 붉은색(레드존)으로, 낮은 곳은 흰색에 가깝게 나타난다.

광주의 '성폭력 발생지도'(2012년 8월~2015년 7월)를 분석한 결과, 광주송정역 등 이외에도 호남대 건너편인 광산구 선암동 주변, 월곡1동주민센터 인근, 첨단 임방울대로 800번길 일대 등이 진한 붉은색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에서 송정로를 지나 송정사랑병원 인근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650m 구간과 송정제일교회 주변, 송정2동주민센터 인근 등 송정동 일대에 진한 붉은색이 많았다.

또 서구 상무중앙로 우리은행 사거리 반경 100m 일대, 남구 주월동 서문대로 742번길 주변 100m 일원, 월산동 군분로 89~90번길 사이 200m 구간, 북구 운암동 금파공고 옆 비엔날레로 170m 구간도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한 '레드존'이었다.

무단횡단 사고(2012~2014년)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동구 남광주역 사거리 반경 140m 일원, 서구 농성역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580m 구간, 서구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반경 270m 일대, 남구 대성초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140m 구간, 북구 북구청 사거리와 유동사거리 일원 등이 지도 서비스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동구 광주천 중앙대교, 계림동 산장입구 ▲서구 돌고개역 주변, 풍암동 중흥2차아파트 앞 대로, 동천주공6단지 인근, 운천역 주변 ▲남구 백운고가 일원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인근, 신안동 신안교 주변 ▲광산구 수완지구대 일대, 광주송정역 일원 등은 지난 2014년 자전거 사고가 많았던 장소로 조사됐다.

동구 충장로1가와 학생회관 주변,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사거리 일대는 어린이 범죄 다발지역으로 분류돼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광주에서 최근 3년(2012년 8월~2015년 7월)간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모두 97건이 발생한 서구 쌍촌동이었다. 이어 서구 치평동(86건), 북구 용봉동(78건), 광산구 우산동(74), 서구 화정동(71건)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004건, 북구 801건, 서구 579건, 남구 417건, 동구 392건의 화재가 일어났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북구 10명, 광산구 4명, 동구·남구 각 1명씩이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광산구가 63억원에 달했고, 북구는 3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생활안전지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map.go.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새해 연휴 짙은 안개로 사고 잇따라

곡성IC 인근서 고속버스 추돌 1명 사망·22명 부상

영암 염료공장 폭발 1명 사망

새해 연휴 짙은 안개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9시43분께 곡성군 삼기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IC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고모(42)씨가 숨졌고, 승객 22명이 다쳐 광주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앞에서 서행 중이던 버스를 뒤따르던 고씨의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극심한 지·정체로 뒤따르던 일부 차량이 가벼운 추돌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는 운전자와 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40m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충남 보령시 광천IC부근에서는 차량 16대가 연쇄 추돌했다. 3일 오전 8시22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이모(43)씨가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도 짙은 안개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영암에서는 염료공장 폭발 사고가 났다.

지난 31일 오전 10시53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섬유 염료 생산공장에서 압력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오모(63)씨가 숨졌고, 장모(52)씨가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염료 원료인 규산나트륨을 제조하는 탱크(2t 용량)가 압력이 계속 오르면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에 오른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께 무등산 장불재에서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기다리던 윤모(19)군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119 산악구조대와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신고,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20여건의 신고를 받고 무등산에 출동,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영암=문병선기자 moon@

연휴엔 영화가 최고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로 크게 붐볐다. 올해 새해 연휴는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로 인해 해맞이 등 나들이객도 많았지만 영화와 쇼핑 등 실내 활동으로 보낸 사람들도 많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무사 해킹 피해' 교수 "누군가 또 해킹" 고소장

국군기무사령부 해킹 사건의 피해자였던 조선대 기광서(52·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자신의 이메일을 누군가 해킹하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 교수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학술지 '동북아연구'의 이메일을 6차례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광주동부경찰에 지난 3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은 관련 사건을 사이버수사대로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해당 계정에서 6차례 '로그인 차단 기능'이 실행됐다는 통보를 포털사이트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세 차례 기무사 요원들한테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조선대 교직원 웹하드를 해킹해 그의 인명파일과 연구자료 등을 빼간 혐의로 기무사 요원 4명을 구속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여수 화양~적금 도로공사 입찰 담합 125억 손배소

법무부, 4개사 상대 반환소송

정부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은 여수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 30일 1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공사는 여수-고흥 간 국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1296억원이 투입됐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초 설계·시공을 모두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담합건을 수사해 최근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검찰 형사처벌은 모면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로 발주한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대보건설·서희건설·한라건설을 상대로도 지난 달 18일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4건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여수 60대女 살해범은 자살한 이웃집 여성

여수에서 실종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광주일보 12월30일자 6면>의 살해범이 최근 자살한 이웃집 여성으로 밝혀졌다.

여수경찰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지난 24일 여수시 소라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A(여·66)씨의 옷 등에서 검출된 혈흔이 지난 26일 같은 마을 한 배수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B(여·64)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20분께 이웃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온 뒤 연락이 끊겼다가 지난 26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판단했던 A씨가 B씨 실종 후 목을 맨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빨래통에 벗어놓은 옷과 장화, 흉기 등에서 B씨의 혈흔을 찾아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실종 1년5개월 50대男 백골 상태로 시신 발견

광주의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된 지 1년5개월 만에 백골화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야산에서 난을 채취하던 주민이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시신은 지난 2014년 7월25일 가족이 실종 신고한 A(57)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연거푸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했다"는 가족 진술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졸음운전 좌초 선원 13명 구조

쌍나팔

○…갈치와 조기잡이를 마치고 여수로 돌아오던 어선이 운항 부주의(졸음운전)로 무인도에 좌초됐으나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여수선적 89t급 안강망 어선 S호가 지난 2일 새벽 2시52분께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무학도(무인도) 북서쪽 저수심 자갈밭에서 선원 13명을 태우고 여수로 오던 중 좌초됐다는 것.

○…해경은 11명의 선원을 경비정으로 옮겨 태운 데 이어 선미와 선수를 번갈아가며 예인하는 방식으로 무인도 자갈밭 저수심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S호를 깊은 바다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곡성, 농가 전원 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7천만원 매매 45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감정/시세 1억 6천만원
- 매매 1억 1천만원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7080자리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 감정/시세 7억, 모든 업종 오픈가능
- 매매 5억 6천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시세/감정가 8천만원
- 매매 4000만원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회사직거래 H.010-3605-5000

나주, 혁신도시 대지
- 나주시 빛가람동 506-4번지
- 부영아파트(783세대) 신축부지 후문 앞
- 코너, 78평, 점포주택지(3층)
- 시세 4억 매매 3억원
- 대출 1억 3천만원 있슴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 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2차선 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북초 인근
- 시세 2천만원 매매 550만원

금호콘도, 회원권
- 법인, 무기명, 등기제, 35평
- 분양가 3500만원
- 매매 2000만원